

한국열관리사협회
효율적 열관리
회원의 복리증진
전문기술향상

2004년
1월호 제22호

발행인/백두인 등록번호/서울(라09204) 발행처/(사)한국열관리사협회 대표전화 (02)2675-3436

The Korea Heat Energy Engineers Association Reports

“법정교육” 국회 통과되다

열관리사들 전문기술인으로 지위향상 기대



문 성과로 그 동안 교육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들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협회 백두인 회장은 “법정교육의 부활은 우리 열관리인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가교역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지면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법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9년 폐지된 이후 약 5년간 제도적인 틀 안에서 교육을 받아 볼 수 없었던 전국의 열관리사들에게 기쁨 속에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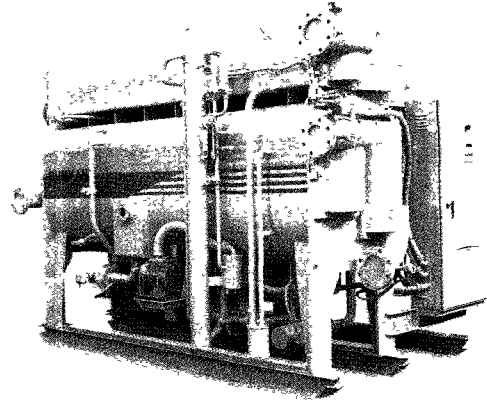
금번 “법정교육”의 국회 통과는 그동안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에 열관리사들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우리 협회와 법정교육 부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한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이

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라며 “정부안으로 이번 법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산업자원부 관계자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축이 되어 함께 의지를 모아주었던 에너지업계의 유관단체 여러분들의 협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향후 열관리사들은 법정교육의 부활을 통해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게 되어 침체되어 있는 열관리사들의 사회적 인지도와 대외적인 명분을 얻음으로써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지위향상이 기대된다.

“흡수식냉·난방기기사기능사”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신청하다



그 동안 우리 협회에서 실시해 왔던 민간자격 “흡수식 냉·난방기시설관리사” 자격교육이 국가로부터 1차 서류심사와 2차 정밀실사를 통과함으로써 협회 교육수준의 우수성이 이미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협회는 본 자격증이 에너지업계에 미치는 파장과 국가 산업발전에 미칠 영향은 물론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으로써 민간자격보다는 국가자격으로의 탄생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종목신설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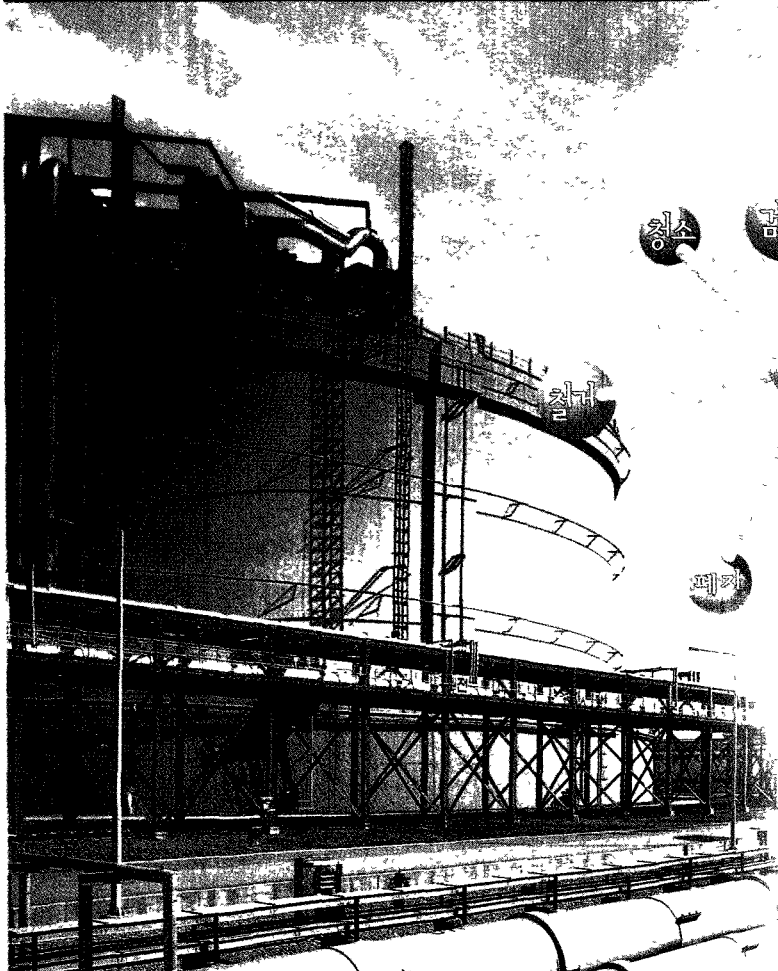
백두인 회장은 “이번 흡수식 냉·난방기기사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청은 기존의 민간 자격 취득자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기존의 민간 자격소지자 그리고 예비 취득자들에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협회차원의 전폭적인 혜택을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민간자격 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난방설비관리사” 자격의 인증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흡수식 냉·난방기시설관리사” 자격교육에도 더욱 힘을 쏟을 방침이다.

금번 “흡수식 냉·난방기 기사”의 국가자격이 확정될 경우 수만명의 열관리사들의 고용창출효과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파급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협회와 열관리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탱크교체無선언: 부식탱크 내부 특수라이닝 보수사용



㈜ (주) 덕양엔지니어링
http://www.oilcleaning.co.kr

귀사의 위험물 유류저장탱크 문제점을 책임지겠습니다

주요 공사실적업체

태광산업/신도리코/동부제강/태평양/대한제세공업/홍천하이트맥주/천안진로산업/파주시민회관/청주시청/서울세관/서산시청/한국미사회/수원성균관대학교/용인명지대학교/항공대학교/경상대학교/롯데월드/대구파크호텔/무주리조트/백암한화콘도/대전심부아파트/의정부장암아파트/광주두암주공/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이천○○작전시령부/대구○○시령부/충천○○사단/원주○○사단/현대정유/에스-오일/저유소/주유소/다수업체

방커유 유류탱크를 청소한 후 경유탱크로 품목 변경 사용



■ 탱크청소공사 ■ 탱크내부라이닝 ■ 탱크 및 배관보수 ■ 유류사고 긴급보수 ■ 탱크 용도폐지공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22번지 대표전화 : (02)2636-0997

TEL : (02)2678-0997/8, FAX : (02)2671-8725